

◎팔만대장경

- 외적의 침입과 같은 큰일이 생기면 부처의 힘에 의지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()을 만듦
- 고려는 이전에 만든 ()이 몽골의 침입으로 불 타 없어지자 팔만대장경(재조대장경)을 다시 만듦
- 팔만대장경은 높은 불교 지식수준과 초조대장경을 바탕으로 (), 거란에서 들여온 대장경까지 비교하여 만듦

◎팔만대장경의 우수성

- 십여 년간 목판 8만여 장에 불경을 새긴 것임에도 글자가 고르고 () 글자도 거의 없음
- 고려의 뛰어난 ()제조술, ()술, ()술을 보여줌

-대장경 만드는 과정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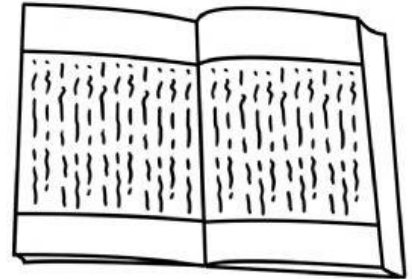


◎팔만대장경판만드는과정

- ①나무를 잘라 ()에 2년간 담그기
- ②나무를 알맞게 자른 뒤 ()에 삶기
- ③바람이 잘 드는 ()에서 1년간 말리기
- ④일정한 크기로 잘라 ()새기기
- ⑤새긴 목판을 찍어 보고 ()글자 고르기
- ⑥귀퉁이를 ()으로 마감하고 ()을 해 보관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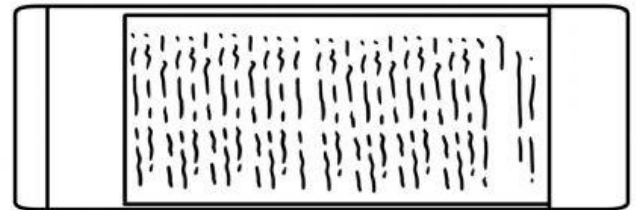
◎팔만대장경 인쇄본

:고종 2년에 해인사의 고려대장경판을 직접 인쇄한 것으로 강원도 평창 ()에 보관됨



◎합천해인사대장경판

:()으로 새겨져 있으며 나무가 뒤틀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귀퉁이를 구리판으로 마감함. 유네스코 세계 ()유산으로 등재됨



◎합천해인사장경판전

:안쪽 바닥 속에 (), ()가루, (), 모래를 넣고 바람이 통하도록 ()을 뚫. 습도가 조절되도록 과학적으로 설계하여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됨

